

# 미국 국민학교 미술 교과서에 나타난 디자인 교육에 관한 고찰

-조형원리, 색채 및 각 분야별 디자인 교육을 중심으로-

박은덕

홍익대학교

디자인은 보다 나은 인간 생활의 창조를 위하여 사회 발전과 기업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오늘날 선진 각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수출 전략을 위한 공업 디자인,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업의 디자인 자세, 소비자의 굿 디자인 제품에 대한 선호도, 시각 디자인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아직도 미흡한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디자인 교육, 즉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대학, 대학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때에, 학교 교육이 정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국민학교 학습 현장에서부터 디자인에 대한 개념 및 내용, 감상 등의 교육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자질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함양시켜야 할 것인가? 제한된 시간과 과정에서 어느 디자인 분야까지 교수 범위를 넓힐 것인가? 국민학교 디자인 교육으로서 가능한 체계적 교수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도록 단순하게 시작하나 점점 복잡성을 더해가도록 하려면 디자인 교육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나?

한국의 국민학교에서의 디자인 교육에 관한 이러한 연구를 다루기에 앞서, 창의성 교육이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미술 교육 중 디자인에 관한 교

수, 곧 디자인을 구성하는 조형원리 및 색채, 나아가서는 어느 분야의 디자인 교육이 어떻게 국민학교 각 학년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 보는 것도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다. 미국의 국민학교 교과서는 한국 국민학교 교과서와는 달리 국정 교과서라는 것이 없으며 각 학교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 중의 하나가 Laura H. Chapman의 Discover art이다.

본 연구는 미국 국민학교 미술 교과서인 Discover art에 나타난 조형 원리, 색채 및 디자인 각 분야가 발달단계 및 학습단계에 맞게 연속성을 가지며 국민학교 각 학년의 단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분석, 비판하였다. 조형원리에서는 단어는 직접 사용되지 않고 개념만의 소개, 단어 및 개념 소개, 소개되어진 조형 원리의 다음 학년에서의 학습 반복으로, 색채에서는 소개되어지는 색채의 수 및 색의 속성으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 분야별로 감상만을 위한 학습 및 직접 실습을 위한 학습 등으로 나누어 각 학년별로 조사하였다.